**< 이탈리아 차 로고 >**

**1. 페라리(Ferrari)**



페라리의 로고인 `프랜싱 호스`(Prancing Horse, 뛰어오르는 말)는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프란체스코 바라카`(Francesco Baracca)가 자신의 비행기에 그려 넣은 것이 그 유래로, 그의 이름을 따서 `바라카의 말`(Baracca´s Cavallino)이라 부르기도 했다. 1923년, 엔초 페라리는 라벤나(Ravenna)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하여 프란체스코 바라카의 부모를 만났다. 프란체스코 바라카의 부모는 프란체스코가 전투기에 그려 넣은 말 그림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며 엔초 페라리의 자동차에도 말 그림을 넣을 것을 제안했다. 페라리는 자신의 고향 모데나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말을 차량에 그렸고, 이 그림은 페라리 브랜드 로고의 효시가 되었다. 사각형 프레임의 프랜싱 호스는 페라리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의 로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패형 프레임은 페라리의 레이싱 팀을 의미한다. 방패형 로고에서 볼 수 있는 S와 F는 1929년 엔초 페라리가 창설한 F1 레이싱 팀인 `스쿠데리아 페라리`(Scuderia Ferrari)의 머릿글자에서 따왔다.

**2. 마세라티**



마세라티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포츠카 브랜드입니다.

1914년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처음 설립된 마세라티는 지금은 모데나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왕관처럼 보이는 마세라티의 엠블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사용하는 삼지창을 의미합니다.

**3. 람보르기니**



이탈리아 스포츠카 브랜드 람보르기니는 값비싼 스포츠카로 뭇 남성들의 드림카로 유명합니다. 람보르기니의 창업자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트랙터 제조 사업을 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이탈리아에서 스포츠카 제조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당시 유명한 스포츠카 브랜드였던 페라리사의 엔초 페라리를 만나 그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얻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에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독자적으로 스포츠카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요. 스포츠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라고 굳게 다짐하며 사업에 뛰어들어 엠블럼을 성난 황소 모양인 투우 문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의 엠블럼이 투우가 된 데에는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의 태어난 별자리가 바로 황소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업자의 별자리가 반영된 람보르기니의 엠블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bana123321&logNo=220183613274&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